언택트 시대, 사찰서 한 박자 쉬어가면 어떨까

전국 사찰서 다음달 15일까지 템플 스테이
증심사·송광사 등 광주·전남 21개 사찰 포함
참선·발우공양·차담·사찰 음식 체험
지역 사찰 예약 참가자 500명 '남도패스'

지난해 광주 증심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가롭게 경내를 거닐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증심사 제공〉

템플스테이는 OECD가 선정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문화상품'으로 꼽힌다. 바쁘고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사찰에 머물며 참선, 발우공양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 힐링을 준다.

코로나19로 자연 속 언택트 쉼이 여름휴가 키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잠시 고적한 사찰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광주·전남 21개 사찰 등 전국의 사찰(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참조)에서 템플 스테이를 진행한다.

특히 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15일까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광주 전남권 사찰을 예약한 참가자 총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남도패스'를 무료 증정한다. 남도패스는 광주시, 전남도 주요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레저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대상 사찰은 광주 증심사와 무각사를 비롯해 전남의 대흥사, 도갑사, 무각사, 무위사, 미황사, 백련사, 백양사, 불갑사, 선암사, 송광사, 신흥사, 쌍봉사, 연곡사, 운주사, 정혜사, 증심사, 천은사, 화엄사, 흥국사이다.

먼저 광주 증심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과 방역관계자를 위한 심신안정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또한 예불, 공양 시간을 지키며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휴식형은 최대 3박4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문의 010-5601-0109.

무각사에서는 당일형과 청소년을 위한 템플라이프가 진행된다. 당일형은 '나를 위한 행복여행-여의산 色'으로 다양한 사찰문화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다도체험, 차담, 명상, 숲길 체험, 연꽃 만들기 등 여의산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템플라이프는 인성교육과 불교문화 체험 위주로 꾸려진다. 문의 062-383-0107.

아름다운 보성 천봉산의 백제고찰인 대원사에서도 템플스테이가 펼쳐진다. '나를 보게 하소서'(당일형), '차 한 잔의 행복'(휴식형), '나를 보게 하소서'(체험형)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61-853-1755.

해남 대흥사에서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문화재 최고 보존은 활용이다'라는 가치 아래 전통문화유산에 스민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다. 1500년 역사와 문화 숨결이 스민 세계유산 산지승원을 거닐며 서산대사, 초의선사와 같은 대표적 인물들을 만난다.

또한 코로나19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와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도 펼쳐진다. 문의 061-535-5575.

장성 백양사에서는 사찰음식 체험이 눈에 띈다. 음식을 만들지 않고 스님의 수업을 듣는 시간, 건강한 음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 등 사찰음식을 매개로 심신의 여유를 갖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한가롭고 편안한 주말에 진행되는 휴식형에는 저녁예불, 108염주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약사암 산행 등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1-392-0434.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 템플스테이 명칭은 '스님, 계십니다'.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불일암과 16국사 스님들이 수행했던 암자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무소유 길은 지난 2010년 입적한 법정스님이 오르내리며 큰 깨달음을 이룬 길로, 지금도 송광사 스님들의 행선 코스로 애용되고 있다. 문의 010-755-5350.

화순 운주사는 '천불천탑, 별별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휴식형이다. 예불, 공양, 사찰안내, 스님과의 차담 등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다. 010-5850-066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화가의 정원'

"대숲은 거닐 때 들리는 소리는 일품이다. 남도의 풍광을 극적으로 만드는 대나무 숲의 매력은 소리에 있다. 잎이 무성한 여름도 좋지만, 겨울철 대나무의 소리가 훨씨 인상적이다. 죽설헌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움에서 온다."(윤광준의 '내가 사랑한 공간들' 중에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태풍 '장미'가 북상하던 날, 나주 금천면의 죽설헌(竹雪軒)을 찾았다. 사진이 제대로 나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비 내리는 정원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산을 쓰고 숲속을 거니는 느낌은 특별했다. 먹구름 낀 하늘과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부채처럼 펄럭이는 파초가 어우러진 풍경은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웠다. 특히 조붓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수종(樹種)의 향연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한국화가 시원 박태후 화백(64·조경가)이 머무는 죽설헌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50년 간 혼자 일궈낸 개인 정원이라는 점이다. 평소 나무와 꽃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원예학교 졸업 후 농촌지도소에서 일하며 틈틈히 아껴 모은 돈으로 1만3천 여 평에 이르는 정원을 꾸몄다. 특히 한국 고유의 정원을 꿈꾼 박 화백은 모든 나무와 꽃을 직접 가꾸며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정원'을 탄생시켰다. 말 그대로 시간과 자연, 화가의 열정으로 빚어낸 대지미술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화가의 정원'은 로망의 대상이다. 독특한 미적 안목을 지닌 작가들의 정원은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될 수 있어 한번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베르니의 '모네의 정원'이 대표적이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인 지베르니는 클로드 모네가 1883년부터 1926년 사망할 때까지 43년간 머물며 창작활동을 펼친 곳이다. 저택과 정원, 수련 연못이 꾸며진 모네의 집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들어선 갤러리와 패션샵, 카페, 레스토랑에는 연중 수십여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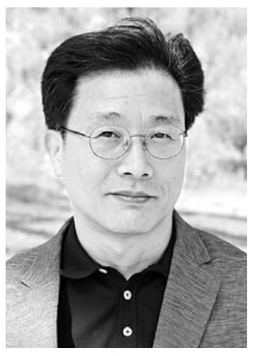
국내에선 한국화 거장 운보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이 자랑할 만 하다. 지난해 둘러본 운보의 집은 평일인데도 많은 인파로 활기가 넘쳤다. 운보가 지난 2001년 88세로 세상을 떠날때까지 22년간 거주하며 말년을 보낸 이 곳은 한국의 '100대 정원'이자 드라마 '선샤인' 등의 촬영무대로 더 유명해졌다. 특히 잔디정원에는 국보급 야외 자연석들이 분재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조각공원에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조각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한때 소유권과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충북도가 관리권을 맡은 후 '청주시티투어'의 거점공간으로 키우고 있다.

최근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제1회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순천 별량에 위치한 '화가의 정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예쁜정원' 명판과 함께 편의시설을 확충한 후 민간정원으로 등록, '블루투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머지 않아 '죽설헌' 등 남도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정신 예술로 승화한 시와 선율의 무대

광주예총 창작오라토리오 '빛고을' 공연
문병란 시, 김성훈 곡 13일 문예회관

고(故) 문병란 시인


김성훈 작곡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시와 선율의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예총(회장 임원식)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5·18 40주년기념 창작오라토리오 '빛고을'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문학을 매개로 광주정신을 노래했던 고(故) 문병란 시인의 시에 중견작곡가 김성훈 교수가 곡을 붙인 작품 위주로 채워진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와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무대는 오월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지역예술인들과 예술단체가 뜻을 모아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빛고을'은 총 12곡으로 구성됐으며 김덕기 지휘자의 지휘로 광주시립합창단, 여수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 솔리스트들의 열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 날의 꽃넋이여'를 시작으로 문병란 시인의 작품 가운데 어린소년의 죽음을 모티브로 광주항쟁을 묘사한 '저는 그냥 죽었어요'가 연주된다.

또한 '광주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전라도 뻐꾸기', '부활의 노래',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날의 일체감이여',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캄캄한 어둠이' 등도 들려준다.

마지막은 광주정신이 세계로 뻗어 가길 희원하는 시인의 마음과 광주정신 지향을 함축한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가 펼쳐진다.

연출 감독을 맡은 유형민 교수는 이번 무대를 기존의 오라토리오 형식이 아닌 열린 형태 무대로 연출했다. 연극인 강유미는 어머니 역을 맡아 무대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 표현한다. 아울러 합창은 광주시민을 상징하며 각각의 솔리스트(소년, 구두닦이, 아내, 남편)는 40년 전 오월 당시 희생당한 이들을 대표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전석무료, 좌석권 당일 배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책방 심가네박씨' '새날서점' 심야책방 선정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는 동네서점으로'.

'책방 심가네박씨', '새날서점'이 2020 심야책방을 운영할 지역 서점에 선정됐다.

최근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심야책방에는 광주의 2곳을 포함해 전국 70개가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골목책방서성이다', '책방사진관'도 선정됐다.

심야책방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네 서점을 일과 후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아울러 동네서점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알려 지역민들이 서점과 보다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번 심야책방은 폐점시간을 연장(밤 10시까지 필수)해, 서점별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마지막 주 금요일(8월 25일, 9월 25일, 10월 30일, 11월 27일)에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통)
인삼·벌꿀·홍삼·생약초즙·붕어즙·장어즙
닭발즙·칡즙·포도즙 각종고 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니커즈·운동화·가방·카페트 염색, 복원, 수선일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기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 (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